

# '재즈대모' 박성연 별세, 향년 77세...클럽 야누스 지킴이

한국재즈의 산실된 클럽 '야누스' 만들어 평생운영

한국서 재즈 뮤지션들이 설 무대 지키기 위해 헌신

운영난에 소장해온 LP음반 경매처분... '안타까움'

한국 재즈계 대모 박성연이 23일 오전 지병으로 별세했다. 향년 77세.

고인은 전설로 통한 1세대 재즈 보컬리스트다. 2015년 신부전증이 악화, 요양병원에서 투석 치료를 받아왔다.

특히 한국 재즈의 산실이 된 클럽 '야누스'를 만들어 평생 운영해왔다.

한국인이 연 최초의 재즈클럽이다.

1978년 신촌에서 시작해 대학로, 이화여대 후문, 청담동을 거쳐 지금의 서초동에 자리를 잡았다.

박성연은 지병 악화와 운영난이 겹쳐 2015년부터 클럽 운영에서 손을 뗐으며, 현재는 후배 보컬 말로가 클럽을 이어받아 살림을 꾸려가고 있다.

박성연은 2018년 11월 야누스 40주년을 맞아 휠체어를 탄 채 클럽에서 특별 공연을 펼치기도 했다.

박성연은 클럽 운영을 그만두기까지 긴 세월을 경제적 어려움과 싸우며, 한국에서

재즈 뮤지션들이 설 무대를 만들고 지키기 위해 헌신해왔다.

야누스는 대중들의 기호에 맞추는 음악적 타협을 하지 않은 탓에 항상 운영난에 시달려왔으며, 2012년 박성연이 운영자금 마련을 위해 평생 소장해온 LP음반 전부를 경매로 처분해 주위의 안타까움을 사기도 했다.

같은 해 후배 뮤지션들이 이 사연을 듣고 박성연을 돕기 위해 헌정 공연 '맹류, 박성연'을 열기도 했다.

당시 말로, 이부영, 여진, 싸니킴, 해원, 허소영, 그린티 등 한국을 대표하는 재즈 보컬들이 대거 참여했다.

말로는 이 콘서트에 대해 "재즈 보컬들이 돈을 하나도 안 받았다. 선생님이 주셨는데 월세에 보태라고 다 돌려줬다. 이후 다 같이 뒷풀이를 했는데 재즈 보컬 10여명이 다 모인 거다. 원래 보컬들이 '나 디바야'라고 생각하며 잘 안 모인다. 바빠

서 서로 만날 기회도 없었다. 근데 그날 다 같이 썸(즉흥 연주)을 하면서 선생님과 밤새 깔깔대고 웃었다"고 돌아보기도 했다.

박성연의 공연 기획 등의 일을 도운 JNH뮤직 이주엽 대표는 "40여년전 재즈 불모지였던 한국은 이제 여러 재즈 스타와 대규모 국제 페스티벌들을 보유했을 만큼 울창한 숲이 됐다. '야누스'는 오늘의 숲이 있게 한 그 처음의 나무"라고 말했다.

재즈에 대한 애정으로 숙명여대 작곡과에 진학했고, 미 8군 무대에서 가수로 데뷔했다.

1989년 첫 앨범 '박성연과 재즈 옛 더 야누스(Jazz at the Janus Vol.1)'을 발표했다.

이후 '세상 밖에서(The Other Side of Park Sungyeon)' '박성연 위드 스트링(With Strings)' 등 총 4장의 음반을 발표했다.

작년 초에는 후배 가수 박효신과 함께 자동차 광고 모델로 출연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박성연은 이 광고 배경 음악으로 자신의 곡 '바람이 부네요'를 박효신과 듀엣으로 다시 녹음했다.

이 목소리가 마지막 음악 기록이 됐다. 이 대표는 "녹음 당시 박성연은 지병이 급속히 악화해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으나, 휠체어를 타고 노래를 완



성하는 투지를 보였다"고 돌아봤다.

박효신은 지난해 7월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에서 연 자신의 단독 콘서트에서 박성연이 응원차 보내온 편지를 직접 읽어 주기도 했다.

박성연의 마지막 공연은 지난해 9월 '서울재즈 페스티벌'이었다.

이 대표는 "시련조차 되레 음악적 촉박으로 여겨온 박성연은 생전에 이렇게 말했

다. '외롭고 괴로울 때면 난 이렇게 생각했어. 그래, 난 블루스를 더 잘 부르게 되겠구나.'라며 "재즈를 향한 종교적 열정으로 평생을 걸어온 박성연의 긴 여정이 끝났다"고 전했다.

빈소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12호실, 발인 25일 오전 5시30분, 장지 벽계장 파주법원 리선영. 02-2072-2010

뉴스

## 'BTS 선행' 제이홉 이어 지민 장학금 1억 쾌척

지민 "전남지역 학생들에 써 달라"



세계적인 7인조 보이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장학금 선행이 이어지고 있다.

광주 출신 메인댄서 겸 서브래퍼인 제이홉(26·본명 정호석)에 이어 부산 출신 메인댄서 겸 리드보컬 지민(25·본명 박지민)이 각각 1억원을 장학금으로 쾌척했다.

24일 전남도 교육청에 따르면 BTS 멤버인 지민이 지난달 29일 전남미래교육재단(이사장 장석웅·전남교육감)에 장학금 1억원을 기부한 사실이 뒤늦게 알

려졌다.

지민의 아버지 박현수씨는 아들을 대신해 도교육청을 방문한 뒤 장석웅 이사장에게 "전남의 학생들을 위해 사용해 달라"며 장학기금을 기부했다.

지민은 부산 출신으로 모교와 부산시 교육청 등에 기부활동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으며, 이번 기부는 고향이 아닌 전남 학생들을 위한 것이어서 그 의미가 남다르다.

도 교육청은 BTS 지민을 전남교육발전 공로자로 '전남교육 명예의 전당'에

헌액할 예정이다.

장석웅 이사장은 "BTS 지민의 선한 영향력이 지역 학생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기부금을 소중히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에는 제이홉이 "후배들을 위해 써 달라"며 고교인 광주 국제고에 1억원을 쾌척했고, 학교 측은 1년에 15명, 1인당 100만씩, 5년 동안 모두 75명에게 제이홉 장학금 750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나머지 2500만원은 같은 학교법인(춘태학원) 산하 자매학교인 전남여상에 지원됐다.

"받고 누리게 즐거움보다 나누고 베푸는 즐거움이 크다"는 나눔과 공감의 정신에서다.

첫 수혜자는 스승의 날인 지난해 5월15일 나왔다.

국제고에서 15명, 전남여상에서 10명이 장학생으로 뽑혀 각각 100만원과 50만원씩의 장학금을 받았다.

광주 국제고는 BTS 제이홉을 비롯, 배우 문근영, 슈퍼모델 조희, 김보라, 1TEAM에 BC 등 수많은 연예인을 배출한 학교로도 유명하다.

매년 스승의날이면 6~7가지 장학금이 주어지는데 올해는 제이홉 장학금이 새로 추가돼 특별함을 더했다.

한편 BTS는 2013년에 데뷔한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소속 7인조 남성그룹으로, 전 세계 2000만 장 이상의 음반 판매량을 기록 중이다.

## '남영동1985' 정지영 감독, 임금횡령 혐의

"오랜 기간 착취...더 이상 정 감독 믿고 못 기다려"



영화 '부러진 화살', '남영동1985', '블랙머니' 등을 만든 정지영 감독이 스테프 임금을 빼돌렸다는 혐의로 고소당했다.

24일 굿라이어스는 공익제보자인 한현근 시나리오 작가를 대리해 정 감독과 제작사 아우라픽처스를 업무상 횡령과 사기, 보조금법 위반 혐의로 이날 오후 서울서부지검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한 작가는 정 감독 등이 지난 2011년 영화진흥위원회에서 스테프 처우개선을 목적으로 지급한 지원금을 스테프 통장에 입금했다가 다시 프로듀서 계좌로 되돌려 받는 방식으로 횡령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피해 스테프는 최대 1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정 감독 등이 2012년 '남영동1985' 제작 과정에서 일부 스테프에게 지급한 급여를 제작사 대표 계좌로 되돌려 받는 방식으로 돈을 빼돌렸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한 작가는 "정 감독은 오랜 기간 스테프들을 착취하고 임금을 착취했다"며 "겉으

로는 사회 불의에 맞서는 영화를 만들어 업계에서 존경과 사랑을 받으면서도 실제로는 불의한 행동을 일삼는 것을 목격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10년이 지난 지금에서 고발하고 묻는 사람도 없었으나 더 이상 정 감독을 믿고 기다릴 수 없다"며 "내가 쓴 시나리오로 만들어진 영화의 진정성조차 의심받게 되는 불명예를 참을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또 "부러진 화살'의 각본은 저 혼자 작성했으나 정 감독의 강요로 어쩔 수 없이 공동 각본자로 등록할 수밖에 없었다"며 "이런 문제제기가 한국 영화계 발전과 스테프들 처우 개선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한 작가는 '부러진 화살'과 '블랙머니'의 각본을 쓰고 '부러진 화살'의 공동제작에도 참여한 인물이다. 현재도 정 감독의 차기작 시나리오를 집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송대리인인 양태정 굿라이어스 공익제보센터 변호사는 "영진위의 보조금 회수 방식으로 볼때 지원금 약정 단계에서부터 급여를 가로챈 의사를 갖고 기망했을 가능성이 높다"며 "이런 편취 행위는 업무상 횡령과 보조금법 위반에도 해당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제작사 아우라픽처스는 정 감독이 사내 이사로 재직하며 실질적인 경영권을 가진 것으로 전해졌다.

정 감독의 아들이 대표이사를, 배우자가 감사를 맡고 있다.

## '미스트롯2' 2차 지원자 모집...45세 미만 여성 · 31일까지

원서 접수만 진행되는 상황...공식 홈페이지에서 지원 가능

TV조선 오디션 예능 프로그램 '내일은 미스트롯2' 2차 모집이 시작됐다.

'미스트롯2' 제작진은 트롯을 사랑하는 만 45세 미만 여성이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며 2차 모집은 오는 8월 31일까지라고 24일 전했다. 제작진은 "미스트롯" 시리즈가 재조명된 장르인 트롯과 '미스트롯' 시리즈 오디션이 배출한 멤버들이 방송가를 활약하며 중장년층의 추억을 소환하고 젊은층에게는 'NEW 트롯'을 제공하고 있다"며 "TV 조선 발 트롯 센세이션은 앞으로도 계속된다. 심혈을 기울인 오디션을

거쳐 올려올 첫 방송될 '미스트롯2'를 기대해 달라"고 말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과 관련 오디션 진행에 대해 제작진은 "2차 모집은 원서 접수만 진행되는 상황"이라며 "방송까지 날짜 아직 많이 남아 있어서 오디션 방식에 대해서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공식 홈페이지에서 참가 지원서 작성 후 간단한 자기소개와 직접 부른 노래가 담긴 5분 내외 영상을 첨부하는 방식으로 지원할 수 있다.

## 이효리, 새부캐 '마오?'...중 누리꾼들 항의 빗발

'마오', 중국 전 국가주석 마오쩌둥 연상케해... '불만 표시'

"놀면 뭐하니?" 새 프로젝트 그룹 '한불원정대'에 참여하고 있는 가수 이효리의 새 부캐릭터 이름을 두고 중국 누리꾼들의 항의가 쏟아지고 있다.

이효리는 지난 22일 방송된 MBC TV 예능물 '놀면 뭐하니?'에서 제작자 '지미 유'로 변신한 유재석과 개인 면담을 가졌다.

이효리는 아직 예명을 못 정했다며 유재석에게 "글로벌하게 중국 이름 '마오'가 어때냐"고 물었다.

이에 중국 누리꾼들은 '마오'라는 이름이 중국의 전 국가주석 마오쩌둥(모택동)을 연상케 한다며 불만을 표시한 것.

이들은 이효리의 SNS에 "나도 한국에 진출하려고 한다. 예명은 '세종대왕'이 어때냐", "한국 사람이 점점 연계워진다" 등의 댓글을 다는 등 비방글을 올리고 있다.

한편 논란을 의식한 듯 '놀면 뭐하니?' 측은 VOD 등 유료 다시보기 서비스에서 해당 장면을 삭제했다.